

1000억 빼돌린 피의자 심문 불출석 후속조치 이견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겨...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해 법원 "구인장 발부했다"...경찰은 "법원이 재심사 일정 잡아달라"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0억 여원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15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장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의 거래가 평균치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가를 조작해 14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인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은 받은 수사기관중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지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에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친

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인장 발부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A씨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된 상태로 오는 20일까지가 기한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사전 구속영장을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사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병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법정에 데려오면 되지만,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구금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법정까지 구인해와야 영장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불출석하면서 후속조치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견이 엇갈려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 측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강제로 구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하고 다시 구인장을 받아 실질심사 일정을 잡아왔다"며 "재 실질심사에서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다시 잡겠다는 것이 경찰 측의 계획이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원은 구인장 발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수사기관이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문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장을 집행해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굳이 피의자를 구인해 강제로 출석시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과 "피의자의 불출석을 그대로 허용하면 방어권 등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영장심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A씨의 사건의 경우 A씨가 19일로 영장을 원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15일로 실질심사를 강행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원칙은 구인절차를 집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 간부 강등 처분

광주 일선 경찰서 간부 경찰이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광주동부경찰서 A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결과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갑질 결과 A 과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출퇴근 시 가방을 들게 시키거나 개인 물품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과장은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은 갑질로 확인한 내용을 지난 8월 11일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A 과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처분이 이뤄질 경우 A 과장은 경감으로 1계급 강등되며, 3개월 간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비조합원 승진 배제 해달라는 노조

광산구 공무원노조, 구청장에 요구...조합원-비조합원 갈등

구청 "인사 원칙 따라 처리"
광산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다가오는 공무원 정기 인사에서 비조합원의 승진을 배제할 것을 광산구청장에게 요구해 조합원-비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광산구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지난 14일 광산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면담 당시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를 배제할 것, 나이먹은 사람은 승진에서 배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면담 이후 광산구 내부망 게시판에 '광산구지부 명의로 정기 인사 관련 구청장 면담 결과'란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는 '경력자가 배제되지 않는 승진 인사', '노동조합 무임승차 승진배제 요청', '단체교섭에 인사제도 개선 내용 반영' 등 내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광산구청 소속 공무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올린 글에는 15일 오후 4시 기준 4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비조합원 승진 배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비조합원들이 조합비도 내지 않으면서 노조의 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노조 활동으로 모두가 혜택을 보는만큼 조합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반대 입장에서는 승진은 조합 가입 여부야 아니라 실력으로 하는 것이며 인사와 관련해 조합원·비조합원을 가리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배려해달라는 취지에서 면담을 요청했다"면서도 "우리가 청장에게 요구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존중하나, 인사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2일 광산구청 상반기 정기 인사 승진 대상은 4급 1명, 5급 3명, 6급 14명, 7급 19명, 8급 28명 등 총 65명이다. 승진자 명단은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책으로 만든 성탄트리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이용해 성탄트리를 만들고 있다. 도서관 측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책트리를 기획·제작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정비 용접사들 유죄 선고

한빛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 부실 정비 문제와 관련, 하청업체 용접사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15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중공업·하청업체·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6명과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로 기

소된 두산과 한수원 관계자 2명 및 각 법인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었다. 하청업체 용접사인 A씨(47)와 B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산 직원 C씨(46)와 용접사 D씨(4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8월 영광 한빛원전 5호

기 원자로 헤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용접사들이 오용접으로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한 점을 전수조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로 보고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미쳤고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원전이 부실정비로 가동 될 뻔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h2 style="text-align: center;">장성토지 매매 (분양)</h2>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 style="text-align: center;">[기초반, 중급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공기최고 (축사없음), 소나무 숲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10-6670-98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px; text-align: center;">광주</td>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td> <td>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td> </tr> <tr> <td></td> <td>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td> </tr> <tr> <td></td> <td>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td> </tr> <tr> <td></td> <td>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td> </tr> <tr> <td></td> <td>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td> </tr> <tr> <td></td> <td>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td> </tr> <tr> <td></td> <td>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평가 5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010-2614-9801</p>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평가 5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평가 5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